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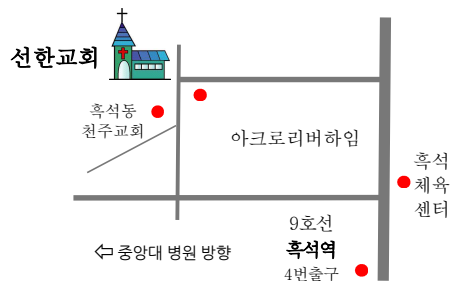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3부(청년)주일오후 1:00	유 아 부	오전 10:00	남전도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0:00	바 울 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11: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 임 목 사 임 춘 배	국 내 선교 사 협 력 교 회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김 진 만 교육전도사 윤 영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박 희 태, 유 신 웅	해외협력선교사	이금춘, 김인실 조나단, 강야엘
장 로	윤 호 중 (집사장)	관 리 장 로 500/50 교회	손 석 규
	조 윤 익, 박 영 근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이 태 수 편 도 선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표 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2)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실 천 사 항	예배회복	말씀/기도회복	선교사의 삶 회복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후 3:16)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28장 (통일찬송가 28장)		
교 독 문	교독문 29번 (시편 65편)		
찬 양 과 경 배	323장 (통일찬송가 355장)		
기 도	박 영 근 장로		구 예 진 청년
말 씬 봉 독	데살로니가후서 3장 6~18절		빌립보서 1장 21~25절
설 교	바울의 마지막 권면 (임춘배 목사)		세상에 유익한 청년이 되자 (김진만 목사)
현 금	김재준, 정구원 집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 일 오 후	오후 3: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성 경 봉 독	요한계시록 1장 9~20절		
기 도	김계순 권사		
말 씬	첫 번째 환상 (임춘배 목사)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씀을 대하는 태도 (시19:1-14)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와 부서별 모임을 코로나 이전처럼 드립니다. 2.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3.오늘 점심: 김밥/ 김기호집사 음료 제공. 4.교회 점심 제공은 8월 21일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5.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성경 1독 유신웅, 이해경, 박영근, 박준혁, 백미경, 편도선, 오인숙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사무실에서 개별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 침례증서 수여	침례자 강대원, 이하연, 김유경, 윤하슬, 박규진, 김한성, 조은혁, 김서현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고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2.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3.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음들을 잘 극복하고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4.선한교회의 각 부서들의 부흥과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5.선한교회를 위해 예비된 분들이 모두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부 서 별 행 사	청년부: 8월 14~15(주~월) 운영위원회: 8월 15일(월) 루디아/여호수아: 8월 28일(주)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가정예배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

찬송 : ‘아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통일 410장)
본문 : 고린도전서 15장 9~10절
말씀 :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방의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은혜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여기에서 ‘사랑’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서 상호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은혜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 여기에 나오는 ‘감사’가 ‘카리스’입니다. 즉, 은혜란 감사로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다는 의미는 매일 매 순간 감사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떨쳐 버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은혜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몬 1:7) 여기에 나오는 ‘기쁨’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기쁨 가운데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행 5:41)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조차도 기쁨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행 6:8)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허락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바울의 마지막 권면 (살후3:6-18)

서 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 바울의 권면

(1) 게으르게 행하고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6절)
(2)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13절)
(3)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14,15절)

본 론

2. 교훈

(1) 피해야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원수같이 대하는가 형제같이 대하는가?

결 론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 배 기 도	박영근 장로	이태수 장로
오후예배 기도	김계순 권사	김명옥 권사

매일 Q.T.		물로 멸한 부패한 세상, 새 생명이 움트는 세상	날짜 : 8월 15일
찬양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본문	창세기 8:1~12		
말씀요약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게 하시고,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니다. 40일 후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7일 후 또 비둘기를 내놓으니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와 물이 줄어든 것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내놓으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묵상질문 1	물이 줄어듦 8:1~5 물이 빨리 빠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과 때가 언제나 옳고 선함을 신뢰하나요?		
묵상질문 2	새로운 시작 8:6~12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기에 내가 참고 견딜 것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위해 은혜로운 행동을 취하셨다는 의미로, 이때부터 홍수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사 49:15~16). 우리에게 보내 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을 보증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외롭고 위태로운 인생에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죄악의 홍수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어 새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오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사는 동안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2세기 중반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던 폴리카프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탁월한 영적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오랜 시간 봉사했는데, 마르시온주의, 영지주의에 맞서 정통 신학을 정립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폴리카프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86세의 고령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의연한 모습과 기품에 감동한 총독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고 제물만 드리면 살려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총독에게 폴리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에 6년을 더해 나는 그분을 섬겼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소.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에게 욕을 한단 말이오.” 그는 산 채로 묶여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폴리카프의 순교는 로마 제국 전역의 교회에 전해졌고 그의 신앙은 많은 기독교인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오로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그가 붙들었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말씀 나누기	창세기 9:1~17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노아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명한 이미지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이 극에 달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아울러 노아와 방주 이미지는 한 사람을 통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과 계획을 보여 줍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노아 이야기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땅에 가득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절)	
적용하기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린다는 측면에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창조 때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 사명을 기억합니다. 창조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선하게 돌보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노아의 세 아들 족보, 세계 민족의 기원	날짜 : 8월 19일
찬양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본문	창세기 10:1~32		
말씀요약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 등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가나안 등입니다. 가나안의 아들은 시돈과 헛 등입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 등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로부터 민족들이 땅 위에 퍼져 갑니다.		
묵상질문 1	야벳과 함의 후손 10:1~20 노아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함 후손이 번성해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묵상질문 2	셈의 후손 10:21~32 노아의 세 자녀 중 셈 후손의 성경적 위치는 어떠한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내 위치와 역할은 어떠한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10장 32절 10장의 족보는 문자화된 세계 지도로, 인류의 공통 기원을 설명합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한 가족임을, 사람을 향한 증오와 전쟁은 가족을 죽이는 일임을 가르쳐 줍니다. 홍수 후에도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의 복을 실현시키지만, 이스라엘은 인류의 후발 주자이기에 이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모든 족속과 나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소서.		

매일 Q.T.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새 인류	날짜 : 8월 16일
찬양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본문	창세기 8:13~22		
말씀요약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노아는 가족과 모든 생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 말씀을 기다림 8:13~19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때는 언제였나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의 용서 의지 8:20~22 사람이 여전히 악한데도 하나님이 '용서 의지'를 선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한절묵상	창세기 8장 21절 무시무시한 홍수의 심판조차 인간의 악함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홍수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계획할 뿐입니다. 홍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람의 변화와 성숙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악함을 미리 아시고도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이 제가 사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제 삶의 선택과 행보가 되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져도 엎드려 기다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제 인생을 드리게 하소서.		

매일 Q.T.		새 출발을 위한 복된 말씀과 무지개 언약	날짜 : 8월 17일
찬양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본문	창세기 9:1~17		
말씀요약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수지며,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이십니다.		
묵상질문 1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인류 9:1~7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묵상질문 2	무지개 언약 9:8~17 무지개 언약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 주신 사랑의 언약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9장 6절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누군가로부터 멸시를 당할 때 고통받으시고,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자신에게 행하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들을 소중히 여김이 마땅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 자신과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손수 지으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알리게 하소서.		

매일 Q.T.		부모의 허물에 대한 자녀의 태도	날짜 : 8월 18일
찬양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본문	창세기 9:18~29		
말씀요약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었는데,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덮습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노아의 죄 9:18~23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 그의 세 아들은 각각 어떻게 했나요? 부모님이나 어른신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하나요?		
묵상질문 2	노아의 저주와 축복 9:24~29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누구에게 각각 어떤 저주와 축복을 했나요? 내가 자녀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 남기고 싶은 축복의 말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창세기 9장 21~22절 한때의 경건이 항상 자신을 지켜 줄 수는 없습니다. 노아는 홍수 전에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술에 취해 벌거벗는 방탕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 주기보다 오히려 형제들에게 말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영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당대에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노아조차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이후 죄에 빠진 것을 보며 경각심을 갖습니다. 어제 신실하게 살았다고 오늘 허물 없이 살리라 보장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말씀의 기준 앞에 저를 바로 세우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